

이재명 '경제 드라이브' 40%벽 뚫나

지지율 30%대 갱신... '윤·안 단일화' 주시 '3자 구도' 재현...이, 오늘 이재노믹스 발표

국민의힘 내홍 사태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'40% 벽'을 넘지 못하고 있어 여론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.

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빠진 지지율이 고스란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는 경향이 엿보이면서 민주당의 촉각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 여부로도 향하고 있다.

대구나 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지지율이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.

선대위 관계자는 10일 "정권교체 지수가 여전히 높은 데다 여기에 안철수 바람까지 부는 분위기라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다"며 "우리로서는 일단 43% 정도를 넘

고 여기에 스윙보터 5%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데 조금은 답답한 상황"이라고 말했다.

다만 당내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의 '극적 화해'로 내부 갈등이 조기 봉합되는 국면에 들어가면서 '안풍'(안철수 바람)이 잦아들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.

이는 향후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윤 후보로 단일화가 되거나 아니면 대선 판세가 3자 구도로 굳혀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으로 이어진다.

이 2가지 시나리오대로라면 현재 여론 지형상 이 후보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.

당 관계자는 "서울시장 경선 때도 안철수의 경쟁력이 월등했는데 결국 오세훈으

로 단일화되지 않았느냐"며 "대선은 진영 대 진영 싸움이다.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윤석열로 될 것"이라고 내다봤다.

이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연말부터 비록 소폭이지만 지속해서 상승하는 점을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.

이러한 흐름이라면 1월 말에는 40%대 돌파도 무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. 민주당은 '설 이전 지지율 40%대 안착'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.

이 후보 핵심 측근인 한 의원은 "후보가 박소권에 갇혔다는 것은 보수언론의 프레임이라고 계속 후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. 박소권이라는 표현이 후보에게 조금 급증을 줘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"이라며 "다음 주로 넘어가면 안정적으로 40%대에 올라설 것으로 본다"고 말했다.

선대위는 11일 신년경제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'유능한 경제대통령' 캠페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

경제 분야 만큼은 상대 후보들 대비 확실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고 설 연휴까지 '경제 드라이브'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.

아울러 자체 브랜드화한 소확행(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)·명확행(이재명의 확실한 행복) 등 생활밀착형 정책·공약도 쏟아낼 생각이다.

이 후보는 11일 '이재노믹스(이재명+이코노믹스)'로 명명한 신년 경제정책 발표, '국력 세계 5위(G5)·국민소득 5만 달러·주가 5천 시대' 등 이른바 '5·5·5 공약'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.

선대위 관계자는 "야당이 아무리 집안 싸움을 해도 보수는 결집할 테고 윤 후보의 지지율도 결국은 어느 정도 복원될 것"이라며 "우리는 민생과 경제 비전을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우리 길만 가면 된다. 40%대도 금방 뚫릴 것"이라고 했다.

/연합뉴스



이재명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(오른쪽두번째)과 김관영 국민대통합위원장 위원장(왼쪽두번째)이 1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21명의 복당 기자회견에서 지역위원장을 소개하고 있다. /국회사진기자단

국민의당 출신 8명 민주 복당

명계남 등 노사모 회원 815명 "이재명 지지"

과거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던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출신 인사 8명이 10일 민주당에 복당했다.

국민의당 고연호 전 지역위원장 등 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복당 기자회견을 열었다.

고 전 지역위원장은 "지역주의에 입각한 정치 구조를 허파하고 정당 민주주의와 정치혁신으로 역동적인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 했으나,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한계를 절감했다"고 밝혔다.

고 전 위원장은 "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념을 이어받아,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주의의 완성과 정치개혁, 정당혁신을 이루려 한다"고 말했다.

당 선대위 김관영 국민통합위원장은 "민주개혁 진영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이 이 후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"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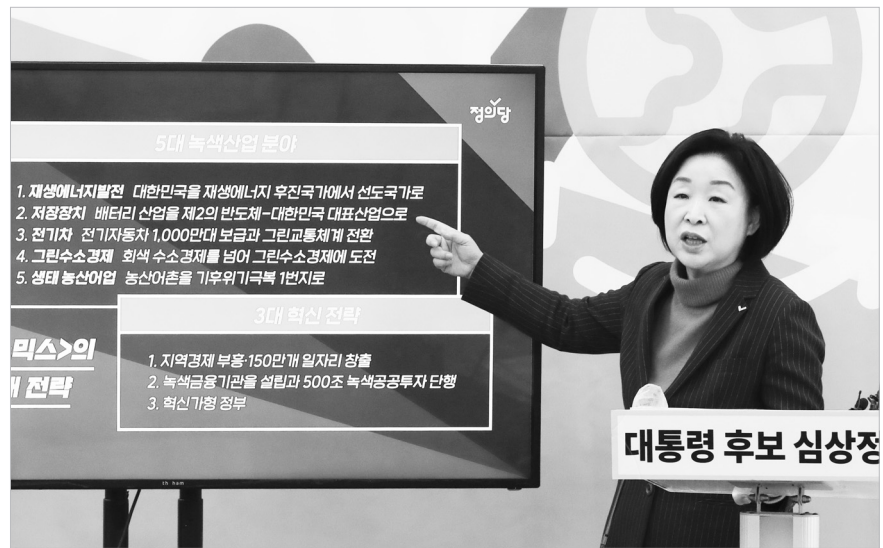
당 지도부가 오는 17일까지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(민주당 전신) 분당 때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인사들 상당수가 복귀할 전망이다.

한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'노사모(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)' 회원 815명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.

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"이재명의 승리는 노무현 정신의 완성"이라며 "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씨 뿌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꾸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노사모 대표를 지냈던 배우 명계남 씨는 회견에서 "각자의 공간에서, SNS에서 적극적인 이재명 지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"고 말했다.

/연합뉴스



심상정 '그린노믹스 공약' 발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'그린노믹스 그린경제 공약'을 발표하고 있다. /국회사진기자단



특강하는 안철수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에서 초청특강을 하고 있다. /국회사진기자단

가상 양자대결...안 43.5% vs 이 38.2%

리얼미터, 코리아리서치... "다자대결서 안 11.1~13.6%"

대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 단일화 이슈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, 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양자 대결 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.

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라디오 '김중배의 시선집중' 의뢰로 지난 7~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,0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 간

양자 가상대결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4.5%, 윤 후보는 39.2%로 각각 나타났다.

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범위(95% 신뢰수준에서 ±3.1%포인트) 내인 5.3%포인트다.

이 후보와 안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안 후보가 43.5%, 이 후보가 38.2%로 조사됐다. 역시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.3%포인트를 나타냈다.

윤 후보와 안 후보 간 야권 단일화에 대

해선 찬성 47.2%, 반대 42.9%로 조사됐다.

두 후보의 단일화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윤 후보로의 단일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52.2%, 안 후보로의 단일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41.4%로 각각 나타났다.

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~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,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'윤석열-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단일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'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.9%가 안철수 후보를 꼽았다. 윤석열 후보는 32.5%로 안 후보와 오

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.

다자대결서 안 후보는 전 주 대비 4.5%포인트 오른 11.1%를 기록했다.

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 지지율은 전주 대비 1.4%포인트 하락한 37.1%였다. 윤 후보는 2.1%포인트 오른 30.5%였다.

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(95% 신뢰수준에서 ±3.1%포인트) 밖인 6.6%포인트다.

안 후보는 전주 대비 5.2%포인트 상승한 13.6%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. /연합뉴스

목포시장 배우자 측 "공작정치에 당했다"

"금품 요구 후 선관위 신고"
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 A씨 측이 "공작정치에 당했다"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.

A씨 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에서 "공작 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선관위에 관바로 신고한 B씨를 목포경찰에 고발했다"고 밝혔다.

이 변호사는 "B씨는 목포시장 배우자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, A씨가 번번이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하며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"고 주장했다.

그는 "A씨가 아닌 B씨의 주변 인사가 무마 차원에서 B씨에게 금품을 준 것이다"며 "B씨는 금품을 전달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고 이후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

했다"며 말했다. 이어 "당시 전달 장소 주변에는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"며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했다.

이 변호사는 "수사 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 소유자, 운행자,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다"고 말했다.

앞서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.

A씨 등은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한 혐의다.

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1,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.

/연합뉴스



오리지널 두유 - 베지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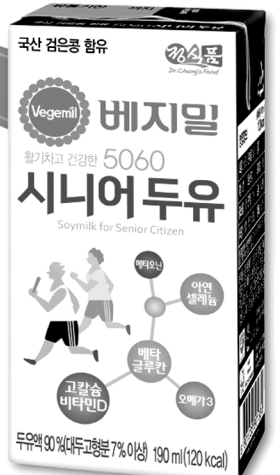
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!

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

★신제품 출시★

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- 하루세끼 건강매뉴

- 뼈 건강 위한 검은콩, 고칼슘, 비타민D
- 건강유지 보충액 베타글루칸 이르기엔
- 필수 단백질 효용 강화 메티오닌
-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, 셀레늄(S)
-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
-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, 올리고당



1 주문 치 | 전국 어디서나 1577-0426 소정 트러스트 www.edaymail.com 1 문의 | 고객상담실 080-800-8888, (02)553-8888 www.vagemil.co.kr
* 제품 명칭: 동부영양소 (02)552-4287 * 배양방법: (02)558-3182 * 납품방법: (02)559-4535 * 품질경영: (02)559-4599 * 배양장: (02)559-4205 * 연구개발: (02)559-4208 * 품질경영: (02)559-4208
* 동부영양소 (02)523-8801 * 진북영양소 (03)324-5721 * 진산영양소 (02)524-5001 * 진명영양소 (03)359-3441 * 진관영양소 (02)523-8558 * 진영양소 (05)479-8331 * 부산영양소 (02)104-8558